

온라인 쇼핑몰 '男風' 거세다

신규 창업자중 절반 차지 ... 지난해보다 2배 늘어

40~50대 기업인들도 쇼핑몰 창업도 잇따라

온라인 쇼핑몰 창업 시장에 '남풍(男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분야지만 최근 1~2년 사이 남성들이 쇼핑몰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심각한 취업난에 쇼핑몰 창업에 나서는 20~30대 남성들도 많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40~50대 중년 남성들도 기업 이미지와 판로개척을 위해 쇼핑몰 창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2일 광주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쇼핑몰 창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체 수강생 46명중 50%인 23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30%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50대 남성으로 조사됐다.

쇼핑몰 창업 교육 후 19명(41.3%)

이 실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으며 이중 12명(63.1%)이 남성이었다.

임대형 인터넷쇼핑몰인 '카페24'(www.cafe24.com)를 통해 쇼핑몰 창업에 나서는 지역 남성들도 늘고 있다.

'카페24'를 운영하고 있는 심플렉스 인터넷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지역 온라인 쇼핑몰 신규창업자는 모두 774명으로 이중 남성이 50.8%인 393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창업자들은 1년 사이 두배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는 192명, 지난해 하반기는 33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창업자 570명 중 58.9%인 336명이 남성으로 여성창업자보다 102명이나 많았다.

심플렉스 인터넷 관계자는 "구직 활동을 하는 남성들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의류나 패션잡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남성 운영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6년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미가한복' 대표 노광환(35·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일찍 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창업하게 됐다"면서 "최근 2~3년 사이에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성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카페24'를 통해 쇼핑몰을 창업한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4만1328명) 보다 20.8% 증가했다. 이는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0.8%,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66.4% 증가한 수치다. 창업 선호 아이템은 의류(36.8%), 패션잡화(13.4%), 유·아동관련상품(9.3%), 식품(7.2%), 생활가전(6.4%) 등의 순이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공정위 광주시사무소 개소 20돌...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시사무소는 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미다호텔 광주프라자 4층 연회장에서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광주시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계 10대 핵심소재 사업 참여 기업·기관 선정

지식경제부는 2일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World Premier Material)' 사업에 참여할 10개 컨소시엄의 22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30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포스코·이하 총괄주관 기관)', '수송기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포스코)',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LG화학)', '다기능성 고분자 펄베인 소재(코오롱FM)',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제일모직)' 등이다.

이와 함께 '고에너지 2차전지용 전극 소재'(삼성SDI), '바이오 메디컬 소재'(아미노로직스), '초고순도 실리콘카본(SiC) 소재'(LG이노텍),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사파이어테크놀로지),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머엄 섬유(효성)'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정부는 WPM 사업단에 중소·중견기업 100여곳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I를 중심으로 구성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컨소시엄에는 모두 19개 참여기업 중 15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승용차·RV 판매 3개월 연속 현대차 추월

K시리즈와 R시리즈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3개월 연속 승용차와 RV차량 부문에서 현대차를 압도하며 질주를 이어갔다. 광주공장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은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판매가 크게 신장됐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전달보다 판매가 늘어 월별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 내수 점유율이 38%에 육박하며 현대차와 격차를 지난 6월 4%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좁혔다. K5·K7·스포티지R·쏘렌토R 등 최

근 출시된 신차를 앞세운 기아차는 7월 내수 4만5100대, 수출 13만3903대 등 총 17만9003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내수 29.6%, 수출 45.6%) 신장된 실적이다.

승용차를 뺀 승용과 RV부문에서만 보면 기아차는 현대차를 크게 앞질렀다. K5는 현대차의 쏘나타를, K7은 그랜저를, 스포티지R은 투싼ix를, 쏘렌토R은 싼타페를 압도하며 격차를 키웠다. 승용과 RV차량은 지난 5월 기아차가 3만5500대, 현대차가 3만 3559대로 1941대 차이로 추월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기업 생산 활황... 中企는 상대적 부진

2분기 생산지수 150.5대 124.5 ... 中企생산 증가율 대기업 절반도 안돼

대기업의 생산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을 훨씬 웃도는 활황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최근엔 약간씩 위기가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산 격차가 확대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체 기준으로 2분기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150.5로 글로벌 경제 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131.2) 대비 14.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24.5로 2년 전(117.3)보다 6.1% 늘어나는데 그쳤다. 생산지수는 원칙적으로 생산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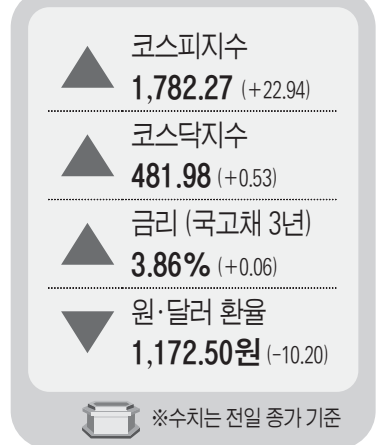
기준으로 2005년 연간치를 100으로 잡고 산출됐다.

따라서 2분기 대기업 지수는 2005년보다 생산이 50% 가량, 중소기업 지수는 같은 기간 25% 정도 각각 증가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라며 "자동차, 정보기술 분야의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의 동력이 된 만큼 상대적으로 경공업과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운기가 뒤늦게 전달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562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차보다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보다 건설자재, 의류 등 내수 위주 업종의 회복세가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박삼구 금호명예회장 경영 복귀 신호탄?

"앞장서 뛰겠다" 임직원에게 이메일

광주상의도 소속 복귀 호소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은 2일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앞장서 뛰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발송했다.

박 명예회장이 지난해 7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 말 박찬범 회장이 사임해 회장직이 공석인 시점에 보낸 메시지여서 박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명예회장은 이메일에서 "오늘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한다"며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조기 정상화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및 극대화 방안 모색 ▲기업문화 재정비 및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익숙한 지식과 경험만을 활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조직의 DNA중 그룹의 미래전략과 관계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1년간 박찬범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과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여러분과 함께 기필코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룹 조기 정상화를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지난달 31일 물러난 박찬범 전 회장과 임직원들의 지난 1년간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그를 관계자는 "오너로서 경영 복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경영복귀 시기를 조율 중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광주상공회의소는 2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이 경영 전반을 이끌어 한다"며 경영 복귀를 호소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호소문에서 "금호타이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실 경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고 박인천 회장의 창업정신을 잇기 위해서는 박 명예회장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r

회원 판매부동산의 딱딱 광고

광주지방법원 시립보통법원 관공기